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목소리 커진다



광양 백운산(해발 1218m)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양시와 구례군이 지난 3년여 동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민운동을 펴고 있으나 정부와 서울대학교의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제, 1912년 동경 제국대 학술림 설치=광양시는 2일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서울대 학술림 앞에서 광양시민단체, 시의회 등 100여 단체가 돌아가며 목요집회를 열고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물 1000종·곤충 1500종 살아있는 생태자원의 보고 서울대 학술림 걸림돌 속 광양시의회·시민단체 매주 목요집회 열고 촉구

환경부 국립공원 기본계획 내년 6월까지 수립 '주목'

서울대에 2026년까지 80년간 대부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대부계약서는 1948년 정부 수립으로 미군정이 끝나면서 근거가 사라져 버리고, 이후 학술림의 소유권은 정부수립 후 농림부를 거쳐 당시 문교부로 이관된 뒤 현재는 교육부에 넘어갔다.

이후 2010년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서울대가 '남부학술림 162.1km를 학교 재산으로 무상 양도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시민들은 백운산 지키기에 나서게 됐다.

광양시 전체 면적 458km의 18%를 차지하는 80km(남부학술림)가 국유지에서 법인화된 서울대로 넘어가면 백운산과 광양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들 시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2012년 말 환경부가 20년 만에

무등산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지정 요구가 많아진 것도 시민 활동에 불을 지폈다.

또 각종 규제를 의식해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던 국민여론이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아 백운산의 생태경관 자원을 보존하자는 뜻을 같이하게 됐다.

◇市, 백운산 일대 116km 국립공원 지정 건의=광양 시민들은 시 면적의 5분의 1이 서울대에 넘어간다는 소식에 백운산을 광양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로 남겨 국립공원으로 보존하자는 데 의지가 모아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이에 광양시는 2012년 5월 시민의 뜻에 따라 '백운산 일대 116km(학술림 107km 포함)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국토의 60%가 산지인 나라에서 정책 수립과 인력 양성을 위해 남부 학술림을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운산은 다양한 산림생태계와 종(種)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과 식물군집의 변화 등 환경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지역이고,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남부학술림 측은 "산림 연구는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계속돼야 한다"며 "교육용 재산을 임의로 처분·매각할 수 없는 여러 안전장치가 있고 더 많은 공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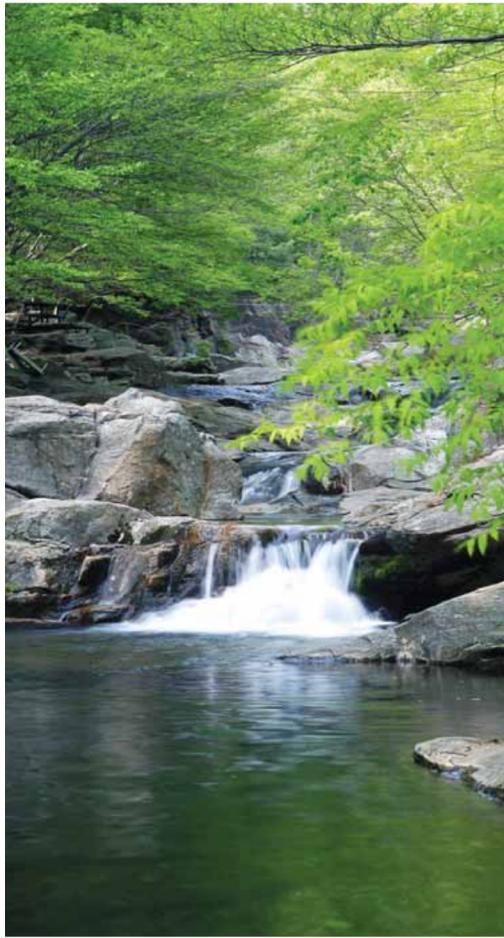
반면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이경재(50) 추진위원장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도 서울대 학술림의 기능 유지는 충분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립공원 지정 열기가 가장 뜨거울 때 광양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광양 백운산, 대구 팔공산, 부산 금정산, 울산 가지산, 무안·신안갯벌, 인천 강화갯벌 등이 국립공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민단체, 시의회 등 100여 단체는 지난 6월부터 서울대 학술림 앞에서 매주 목요집회를 열고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식물 1000여종, 곤충 1500여종이 서식하는 생태자원의 보고 광양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운산 4대 계곡 중 하나인 성불사 계곡.



백운산 식물생태숲.

광양경제청-금호석화 울촌산단 분양계약 신재생에너지 1200억 투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 지난 30일 울촌산단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하는 금호석유화학(주)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합성고무 생산능력 세계1위 업체로, 그동안 석유화학 관련 제품을 생산했으나 사업의 다각화와 정부의 탄소배출 규제와 관련해 신사업에 선도적으로 투자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광양경제청 울촌산단 부지 5만평에 1220억원을 들여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과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는 우드 펠릿, 우드 칩, 태양열 시스템 제조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투자내용 중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됐던 TDF(테타이머 고히엔료) 제조시설과 관련, 수차례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시켰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과 관련해 바이오매스와 태양열 시스템 제조공장에도 투자한다.

광양만권의 이번 투자는 광양만을 녹색산업 산업단지라는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500명 내외의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효과와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국내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조산업은 다각도의 사업전환과 신규사업 진출이 필요한 시기"라며 "광양만의 도로, 항만, 공항 등 풍부하게 산업단지가 잘 구비된 인프라와 함께 일해산단이라는 조건은 신규사업 거점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세계무형유산과 함께하는 국내관광 5일 광양 문예회관 다채로운 공연

처용무와 태평가, 판소리, 가곡, 남사당놀이 등 각 분야 명인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 광양에 마련된다.

한국전통문화 연구원이 주최하고, 궁중의례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무형문화유산과 함께하는 국내관광'이라는 주제로 5일 오후 4시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처용무 인남순(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조교), ▲가곡 태평가 이오규(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전수조교) ▲판소리 신영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조교) ▲가곡 아리랑 유지숙(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등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제5호 신영희의 '판소리'



무형문화재 제39호 인남순의 '처용무'



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가람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자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한감정평가 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a82 / PW : 1111
광양시 중마로 494-1 (마동정수장 앞)